

# 2025년 12월 시청자의견 반영실적

방송사명 : 여수문화방송(주)

## 1. 의견 제시 및 조치현황

구분	의견제시	조치현황	처리비율
12월	5	5	100%

## 2. 시청자 의견 제시에 대한 조치내용

연번	접수 일자	의견제시 내용	접수경로	해당부서	조치내용
1	12/6	계정 탈퇴 방법 탈퇴하고 싶은데 메뉴에 마이페이지 같은 게 따로 없는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홈페이지	경영심의 센터	안녕하세요. 여수MBC입니다.  여수MBC홈페이지는 회원정보를 가 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탈퇴를 원하시면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 로그인 후 연결된 서비스관리 에서 서비스 동의 철회를 하시면 됩 니다. 감사합니다.
2	12/19	트로트 클래스  트로트 클래스 "레전드를 노래하다"편 민수현 가수님의 출연 넘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조항조 가수님의 사나이 눈물 부르실때 허스키 한 저음의 애절한 감성은 최고였습니다. 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트로트 클래스에 레전드 늘 노래하다. "조항조가수님" 편 정통트롯 보물 "민수현가수" 가 부른 "사나이의 눈물" 민수현 가수의 감성보이스 매력에 풍당했어요 언제나 꽃길 응원합니다 승승장구 하세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트로트 클래스 감사합니 다.	홈페이지	콘텐츠 센터	<트로트 클래스>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12/22	<p>환단고기의 이슈화에 즈음하여...</p> <p>진본 환단고기는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환단고기는 "환국"과 "단군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로 전합니다.</p> <p>환국(桓國)은 금강의 모습에서 연유한 국호인데 금강이 해가 돋는 모습이어서 '환하다(明也)'라는 뜻으로 "환(桓)"으로 음차표기를 한 것입니다.</p> <p>최초의 나라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하는 "진국(辰國)"이 건국되었습니다.</p> <p>한국 겸 진국의 도성은 '순천시'입니다.</p> <p>순천시의 본래의 지명이 "평양(平陽)"인데 이곳이 최초의 평양입니다. - 평양은 단군성조의 도성인데 6곳이다라고 기록 -</p> <p>순천시는 예로부터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산이수'의 고장으로 불린 곳은 순천시와 김천시입니다.</p> <p>옛 기록을 보면 제석환인(帝釋桓因)의 도성에는 "삼위태백(三危太伯)"이 있는데 봉우리가 셋인 산이 하나로 붙어 있는 산이라고 하며, 산 주위에는 두줄기의 물줄기가 합하여 하나로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중국에도 삼위태백이라고 전하는 곳이 있는데 원조 삼위태백은 순천시 삼산임 -</p> <p>피라미드는 순천의 삼산(三山)을 모사한 것이고 스프링크스는 삼산 옆의 호랑이 모양의 봉화산을 모사한 것입니다.</p> <p>유튜브에 중국의 영토 변천 등을 검색해보면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에 해당하는 시대의 한반도는 '진국(辰國)'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마도 한국의 상고시대에 대한 역사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입니다.</p> <p>"진(辰)"의 일차적인 뜻은 "용(龍)"과 "해(日)"입니다.</p>	홈페이지	보도센터	<p>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p> <p>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환단고기' 내용 알아보고 취재 여부 검토하겠습니다.</p> <p>저희 뉴스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p>
---	-------	--	------	------	---

	<p>용은 상상의 동물이라 했는데 용의 모습을 설명하는 구사(九似)가 있습니다.</p> <p>머리는 낙타(혹은 소) 뿔은 사슴, 눈은 토끼(귀신),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p> <p>한반도 지도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 위에서 언급한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p> <p>한반도를 옆으로 보면 낙타, 한반도를 옆으로 보면 사슴(그대로 놓고 보면 사슴 뿔모양), 옆으로 보면 토끼모양, 한반도를 거꾸로 보면 소모양(옆으로 보면 소 귀모양). 한반도를 거꾸로 보면 곧추선 뱀모양, 한반도를 옆으로 보면 발을 내민 조개모양, 한반도를 옆으로 보면 잉어모양, 한반도 거꾸로 보면 매모양과 매 발모양, 한반도를 거꾸로 보면 호랑이모양, 발모양 등을 볼 수 있습니다.</p> <p>즉, 용은 한반도를 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이자 인류 최초의 나라의 이름은 진국(辰國)입니다.</p> <p>- 복희 황제가 황하에서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그렸다는 하도(河圖), 우임금이 낙수(洛水)에서 신귀(神龜)의 등에 적힌 글을 옮겼다고 하는 낙서(洛書) 등에 등장하는 '용마'나 '거북'도 한반도를 은유한 것으로 역학(易學)이 처음 나온 곳은 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유로 기록한 것입니다. 역학은 고인돌에서 조식수련을 했던 도인(道人)들의 인문학적 소산임 -</p> <p>앞서 언급했듯이 피라미드는 삼각산(三角山)인 순천시 삼산(三山)을 모사한 것이고 인면사신(人面獅身) 스피нк스는 삼산 옆의 봉화산(烽火山)입니다.</p> <p>고대의 신수(神獸)는 대부분 한반도를 은유한 것입니다. 한반도를 거꾸로 보면 사자모양, 머리를 땅고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합하여 인면사신의 스피нк스를 만든 것입니다.</p>			
--	--	--	--	--

	<p>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네 갱도가 각각의 별자리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작은 곰자리와 용자리는 한반도를 가르키고 나비모양 오리온 자리 또한 한반도를 가르키는데 한반도를 좌측에 대칭되게 하나 더하여 펼쳐보면 나비모양인데 이런 모습으로 한반도를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밝은 별인 카시오페아 자리는 태양을 은유하는데 이것은 태양이 돌는 모습인 금강(호남)을 가르키고 있습니다.</p> <p>한국은 금강 이남 즉, 호남을 말합니다.</p> <p>피라미드는 1만 년 전에 한국인(O3a3 P201=고인돌 매장자 부계유전자=동이족 부계유전자=묘족 부계유전자=화하족(중국) 부계유전자=라오스 몽족 부계유전자=일본 화족華族,일본귀족 부계유전자=중국 상고팔대성上古八大姓)이 건설한 건축물입니다.</p> <p>환단고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남의 사회단체, 정치단체들이 일본천황가와 선린우호 관계를 형성하여 정창원의 환단고기를 열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p> <p>- 일본 학자들은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조상은 중원대륙 -&gt; 나주 - 규슈로 이동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음 -</p> <p>감사합니다.</p> <p>- 한반도는 거꾸로 보면 곰모양, 호랑이모양, 차령-소백-금강을 그리고 한반도를 옆으로 보면 머리를 딸고 앉아있는 여자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단군신화에 곰이 여자로 변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은유한 것임. 평안도 이북의 단군조선은 중원으로 가서 은나라가 되었음 -</p>			
4	<p>12/23</p> <p>여자만 행정협의체 발족과 여자만 세계중심도시 건설로 전남의 핵폐기장화를 막아야 합니다.</p> <p>2026에는 새해 벽두부터 장흥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장 유치논란이 지역의 주요이슈가 될 분위기입니다.</p> <p>노관규 순천시장이 누차에 걸쳐서 여수, 순천, 광양의 통합을 주장했는데 현재도 이미 사실상</p>	홈페이지	보도센터	<p>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p> <p>여자만 중심의 효율적인 개발방안 심도있게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지 취재해보고 보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p> <p>저희 기사에 관심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p>

		<p>통합되어 있어 또다른 통합의 절차가 필요치 않는 상황이라서 이는 무용한 주장입니다.</p> <p>2026년에는 여자만의 매립개발과 세계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수, 순천,보성,고흥이 행정협의체를 발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자포자기하여 장흥군민 일각에서처럼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고준위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p> <p>전남동부지역의 선택에 대한 시간적 여유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p> <p>즉시 세계 150국 거리조성과 UN아세아본부의 유치를 기본 계획으로 하는 여자만 세계중심도시 건설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p> <p>여자만 매립개발계획은 일본에 의해서 수립되어 박정희 정부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데 5공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에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이 등장하여 이와 같은 계획이 시민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p> <p>끝으로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p> <p>지금 즉시 동부지역의 강력한 개발계획을 진행하지 않으면 전남은 50년도 못가서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p> <p>여수mbc의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5	12/27	<p>2026년 전남동부지역 개발 방안 제안합니다.</p> <p>1. 여자만 매립개발 세계중심도시 조성 및 여자만 중심 사방 100리 범위로 하는 연담도시 출범</p> <p>도시공학자들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미래에는 세계 주요 메트로폴리탄 몇 몇 도시만 살아남고 중소도시는 소멸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진행형입니다.</p> <p>이것을 바꿔 해석하면 동부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부지역 자체가 메트로폴리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p>	홍페이지	보도센터	<p>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p> <p>저희 여수mbc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남동부권 통합을 통한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여론 형성과 동향 파악에 주력해 왔습니다.</p> <p>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의 통합이 올바른 것인지 선생님의 의견 잘 참조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p>

	<p>여수-순천-보성-고흥을 합하고 여기에 구례를 묶어서 하나의 연담도시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고대에도 최소 행정단위를 사방 100리를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지급시의 면적은 대부분 경기도 면적보다 넓습니다.</p> <p>동부지역 연담도시의 출범의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문은 관광산업 부문입니다. 중국은 관광사업의 단위가 최소한 지급시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1,000년 전에 획정한 행정구역에 갇혀서 소규모로 관광산업을 운영하려고 하니 관광부문이 산업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머무르는 관광을 위해서는 동부지역 연담도시의 출범이 급선무입니다.</p> <p>여자만을 매립하여 세계 150국 거리 조성 및 이곳에 UN아시아 본부를 입지 시킬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자만 세계중심도시 설계 국제 공모전'을 계획하고 외자를 도입하여 즉시로 매립 개발 및 국제도시 조성사업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p> <p>2.동부지역을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 개 국어 공용어 지구로 지정</p> <p>언어의 본질은 '학문'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어 교육에 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동부지역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p> <p>3. 관광산업의 광역화 및 주제별 노선 설정</p> <p>관광산업의 광역화 문제는 해묵은 안건입니다. 동부지역 관광산업은 여전히 '관광객 발도장 찍기' 수준입니다.</p> <p>첫째, 순천역 광장 개발</p> <p>순천역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이곳을 순천역 일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현재의 순천역 지상주차장은 순천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버스 정류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 참고로 중국의 고속열차역사는 주차장이 역광</p>			
--	--	--	--	--

	<p>장 지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p> <p>그리고 순천역에서 시작되는 관광노선을 만들어 줍니다.</p> <p>둘째, 순천역을 기점으로 하는 특성화된 광역관광노선 설정</p> <p>제 1 코스 : 순천역-지리산-순천만습지- 팔영산 노선</p> <p>이 노선은 지리산, 팔영산 두 곳의 국립공원과 유네스코 유산인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관광코스입니다.</p> <p>특히, 지리산과 팔영산은 향후 케이블카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관광산업에 크게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p> <p>순천만습지도 상공에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순천만습지 입구에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운영 중인 계류식 열기구를 유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열기구는 헬륨가스로만 가동하는 것으로 매우 안전하며, 순천만습지 관광객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사업성도 보장해 줄 수 있어서 업체의 투자유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p> <p>제 2 코스 : 순천역-선암사-낙안읍성-장흥군 방촌마을 노선</p> <p>전통 차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찰문화를 가진 선암사, 전통 초가 문화마을 낙안읍성, 발효녹차 청태전의 황실차문화가 있는 고택문화마을 장흥방촌리를 하나로 묶는 관광코스입니다.</p> <p>이는 덕음차로 대표되는 선암사 녹차와 우리나라 유일의 발효차인 당황실과 고려황실의 차였던 장흥의 청태전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다도 체험 관광코스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가마을과 고택마을을 대비해 볼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입니다.</p> <p>아침은 선암사의 다식(茶食)으로 점심은 낙안읍성 한식으로 석식은 장흥삼합으로 즐길 수 있는 미식체험 관광코스이기도 합니다.</p>			
--	---	--	--	--

	<p>제 3 코스 : 연륙연도교 관광노선</p> <p>순천역-고흥여수 연륙연도교를 일주하는 노선을 만들고 고흥 팔영산 능가사와 여수 항일함을 경유하게 하는 관광코스입니다.</p> <p>향후에는 자율주행 관광버스의 투입일 고려하면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4. 지역의 지하자원 탐사 및 개발</p> <p>첫째, 보성 석유탐사 및 개발</p> <p>보성은 일제 강점기에 석유시추를 했던 곳으로 이곳은 제 7 광구에서 이어지는 유맥이 있어서 대규모의 석유시추가 가능한 지역일 수 있는 곳입니다. 보성에서 석유를 채굴하여 곧바로 여수화학공단에서 정유를 하여 수출을 하면 여수화학공단은 현재의 불황을 단숨에 극복하여 제 2 의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p> <p>둘째, 고흥 금당도 금광개발</p> <p>금당도는 일제시대에 많은 양의 금을 채굴했던 곳입니다. 한반도는 금이 풍부하여 어느 지역이든지 금의 채굴이 가능한 지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은 전국에 지역마다 금광개발을 독려했는데 특히 금이 많이 산출되는 지역은 지명을 "쑤"자가 들어가게 바꾸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고흥 금당도입니다.</p> <p>이곳에서 나는 금을 소재로 하여 금괴, 장신구 등을 제작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동아세아 금거래소'를 만들어서 금관련 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고흥군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p> <p>5. 여수공항의 국제공항으로 승격</p> <p>먼저 여수공항을 "여수순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을 위한 공항 확장 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p> <p>중국의 주요도시의 공항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p>			
--	--	--	--	--

<p>북경시 공항 : 북경시 대흥국제공항(北京大興국제공항)</p> <p>섬서성 서안시 공항 : 서안함양국제공항(西安咸陽국제공항)</p> <p>하남성 정주시 공항 : 정주신정국제공항(鄭州新鄭국제공항)</p> <p>상해시 공항 : 상해포동공항(上海浦東국제공항)</p> <p>중국의 주요도시의 공항의 위치를 보면 주도시의 40~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경공항은 인근 대흥구에, 서안공항은 인근 함양시에, 정주공항은 인근 신정시에, 상해공항은 인근 포동구에 있습니다.</p> <p>"여수순천공항"이라고 하면 외부에서는 여수시가 주도시이고 순천시를 부도시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항이름만으로도 여수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민들에게는 여수공항을 새롭게 인식시켜서 공항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수시 순천시가 '원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p> <p>6. 울촌면 조화리 전기차생산 특화 산업단지 조성</p> <p>이번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철강산단의 위기는 후방 연관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본소재 산업단지만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p> <p>이에 울촌면 조화리 일대를 전기차생산 특성화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전기차 전문 생산단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p> <p>이렇게 하면 향후 순천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p> <p>7. 여수-순천-고흥 "천하제일성시(天下第一城市)" 축제 개최</p> <p>여수, 순천, 고흥을 "천하제일성시(天下第一城市)"로 선포하고 '천하제일성시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p>			
---	--	--	--

	<p>여수반도와 고흥반도는 인류최초의 문명발상지로 전합니다.</p> <p>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비파형동검의 90%가 여수국가산업단지 조성시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서 수습되었는데 이로서 여수가 인류의 금속문명의 시원지임을 입증해주기도 했습니다.</p> <p>대체로 여수, 순천, 고흥이 인류최초의 문명발상지이며 특히 순천시가 인류최초의 나라로서 한반도 전체를 영역으로 했던 제석환인(帝釋桓因)의 진국(辰國)의 도성으로 전합니다.</p> <p>우리 전남은 전세계 고인들의 1/3이 있는 곳으로 세계최대의 상고시대 유적지입니다. - 전세계 고인들의 50%가 한반도에 있어서 한반도가 인류문명의 시원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p> <p>중국을 자국의 최초의 문명발상지로 여겨지는 곳을 "천하제일성시(天下第一城市)"로 명명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해마다 축제를 개최합니다.</p> <p>이제 동부지역도 여수, 순천, 고흥을 "천하제일성시(天下第一城市)"로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여 해마다 10월 10일에 세 도시에서 동시에 '천하제일성시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p> <p>예로부터 선가(仙家)에서는 인류문명이 한국에서 나가서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이 다시 인류문명의 중심국이 된다는 이른바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역사철학이 전해오고 있는데 원시반본을 뜻하는 한자인 열십자(十)를 겹쳐서 정한 날짜가 10월 10일입니다.</p> <p>8. 순천시 구도심 활성화</p> <p>첫째, 남문다리 연자루 건립</p> <p>연자루는 본래 현재의 남문다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다시 연자루를 세워야 합니다. 현재 신연자루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일종의 '사기행정'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입니다.</p> <p>대강의 건립방법에 대해서 제안해보겠습니다.</p>			
--	---	--	--	--

<p>연자루의 아래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부를 두 개의 아치문으로 설계합니다. 여기에 참고로 할 건축물로 중국 하남성 카이펑시(開封市)의 대량문(大梁門)을 추천합니다. 여기 상부에 현재 죽도봉에 있는 연자루 규모보다 2배 정도의 규모로 새로운 연자루를 건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적인 전각의 모습은 죽도봉 연자루를 따르도록 합니다.</p> <p>또한 순천대학교에서 남교사거리까지 지하차로를 건설하여 단순 통과차량은 지하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연자루에서 연자루 관련 공연을 하고 순천대학교에서 남교 오거리까지 차량을 통제하여 어린이 놀이터 겸 주말 축제장화 합니다.</p> <p>본래의 연자루는 중국 강소성 서주(徐州)에 있는데 당나라 때 관료였던 장음(張愔)과 여류시인 관반반(關盼盼)의 이야기가 전하는 곳이고, 순천시 연자루는 고려시대 장일(張鎰) 부사와 호호낭자(好好娘子)의 이야기가 전하는 곳으로 이것을 소재로 문화상품을 개발하며 순천시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될 것입니다.</p> <p>연자루에 얽힌 서사를 연극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주말에 연자루에서 공연을 하기 바랍니다. 시나리오의 구성은 중국의 장음과 관반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 이것을 확대하여 장일부사와 호호낭자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하는 구성을 하면 중국관광객에게도 크게 호응을 받는 문화상품이 되어서 순천시에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큰 몫을 할 것입니다.</p> <p>둘째, 팔마비에 착안하여 여덟 필의 말이 끄는 웨딩마차 제작 운행</p> <p>순천시의 전통적 상징은 "팔마(八馬)"입니다. 중국인의 행운의 숫자는 "팔(八)"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천자만이 6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8마리이면 고대 중원의 천자의 마차를 끌던 말보다 더 많은 숫자의 말이 끄는 것이 되어서 천상천제(天上天帝)나 탈 수 있을 법한 동아세아는 일찍이 없었던 마차입니다. 이 팔마차(八馬車)를 운행하면 그 유명세가 천하에 진동할 것이며 순천시는 웨딩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가</p>			
---	--	--	--

	<p>말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p> <p>마차의 형태는 동양과 서양의 마차와 각국의 로얄패밀리들이 탔던 마차들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하게 만들어서 동서양의 마차를 순천시에서 전부 타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p> <p>이에 더하여 의료원로터리 일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차량의 주차를 용이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p> <p>또한 관광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옛 그림을 참고하여 죽도봉 앞에 있었던 동천 고건축물을 복원하고, 동천과 옥천이 만나는 강 중앙에 팔각정을 복원하고 이곳을 동천 양안과 연결하는 3 개의 구름다리를 만들어 관광자원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p> <p>나아가 조선시대 순천도호부 복원사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p> <p>순천시보다 못한 지자체도 조선시대 관아나 성곽 등을 이미 오래 전에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했는데, 순천시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당위적 업무의 해태"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p> <p>그리고 구도심 상가의 재건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p> <p>구도심의 상가건물을 건축된지 오래된 건물이 다수입니다. 구도심의 상가건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재건축 시에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이 반영된 고색창연한 건축물로 재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p> <p>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식 건축양식이 반영된, 예를 들면 기와와 전통단청문양 등이 사용된 처마 등을 기본적 특색으로 하는 표준상가건축모델을 10 여개 정도 설계 제시하고, 이것을 참고하여 상가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특히 재건축비용의 장기저리 융자를 순천시에서 보증하고,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한국식 상가 건축비용의 일정부분을 무상지원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0년 이내에 구도심 상가가 고색창연</p>			
--	--	--	--	--

<p>한 전통상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상가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전통상가 건축에 대해서도 중국 하남성 개봉시의 전통시장 상가건축물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p> <p>8. 순천시 세계종교문화관 건립</p> <p>순천시는 한국불교의 2 대 종파인 조계종의 종찰인 송광사와 태고종의 종찰인 선암사가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 불교성지입니다.</p> <p>또한 남방기독교가 일찍이 들어와서 기독교 유적 또한 풍부한 도시입니다.</p> <p>이러한 유서에 착안하여 동외동에 1 만 평 부지를 확보하여 이곳에 "세계종교문화관"을 건립하고 이곳에 부속건축물로 "송광사 16 국사관"을 건립하여 송광사 불교문화의 구도심 관광자원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p> <p>교려는 불교국가로서 국사(國師), 왕사(王師)가 재상보다 상위(上位)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비, 국사, 왕사, 재상이 나신 고을은 고을의 등급을 한 등급 올렸습니다. 그런데 송광사는 16분의 국사가 나서서 고려말의 종교와 정치를 오로지하였습니다. 16 국사 중에 한 분이신 담당국사(湛堂國師)는 금나라 황제의 아드님이고 여타 국사님들도 당대의 내로라하는 귀족가문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서 관료사회에 진출했던 유학자였습니다.</p> <p>고려시대에는 형제가 3 인이면 한 자식이 출가시키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말에 무신정권의 수장(首長)들이 전부 송광사를 거쳐간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대왕조의 원찰(願刹)이 되었는데, 특히 세계제국이었던 원나라 황실의 원찰이었던 송광사는 동아시아의 로알패밀리들이 모여들어서 공부를 한 1 만(萬) 문도(門徒)의 도량(道場)이자 중세시대 세계최대의 아카데미였습니다.</p> <p>본래 유학자였던 16국사들에 의해서 유불사상(儒佛思想) 융합되어서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태동된 것입니다. 성리학은 유학에 불</p>			
---	--	--	--

	<p>교의 선사상을 도입한 것으로 한 마디로 말하면 "불교적 유학" 내지는 "유교적 불교"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을 이끌었던 이황 선생과 이이 선생의 공통된 이력이 하나 있는데 두 분 다 소실적에 동자승(童子僧) 출신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송광사는 종교사적 의의도 지대하지만 정치사적 및 사상사적 면에서 대단한 의의가 있습니다.</p> <p>고려말에는 송광사가 전국의 사찰을 말사(末寺)로 거느렸습니다. 송광사가 조계산에 위치하였으므로 종파를 "조계종(曹溪宗)"이라 하였는데 오늘날에도 한국의 주요 대찰(大刹)이 전부 조계종인 이유는 고려시대에 송광사가 전국사찰의 큰집인 조계종의 종찰(宗刹)이 되었던 영향입니다.</p> <p>본래의 조계산은 남중국 광둥성(廣東省) 샤오관시(韶關市)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국 선종 육조혜능(六祖惠能) 선사의 남화선사(南華禪寺)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혜능스님의 진신불(眞身佛)이 모셔져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p> <p>선암사의 만세루(萬世樓) 전면 벽에 "육조고사(六祖古寺)"라고 적은 현판이 있는데 이 현판은 조선 3대 명필 중의 한 분인 이광사(李匡師) 선생의 작품입니다. 순천시의 조계산과 중국의 조계산 그리고 선불교의 종교적 연관성에 착안하면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순천시에 세계종교문화관을 건립하고 해마다 "세계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순천시 관광산업의 극대화를 꾀할 것을 제안합니다.</p> <p>9. 순천시 동천 인조보석 산업단지 조성</p> <p>순천시가 반도체와 함께 육성하기 바라는 또 하나의 산업은 인조보석산업입니다.</p> <p>반도체재료인 반도체봉의 제작과 인조보석의 제작과는 그 원리가 유사합니다.</p> <p>그리고 천연보석 산지의 반인권적 행위와 이를 둘러싼 전쟁에 준하는 범죄행위 등으로 천연보</p>		
--	---	--	--

	<p>석의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p> <p>오늘날 인조보석 제조기술 수준은 천연보석과 인조보석을 구별하기 쉽지 않을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인조보석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p> <p>동천변을 인조보석 생산과 가공단지로 조성하면 순천구도심의 대표적 관광문화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고, 공업용 인조보석 생산 중심지로 도약하여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수출 경제에도 크게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p> <p>10. 순천대학교-순천시-구례군-TSMC 반도체 산업 육성 MOU체결</p> <p>현재 용인에 200 만 평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중인데 이곳은 조성 초기부터 많은 우려와 비경제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풍부한 산업용수'와 '대규모 전력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p> <p>우리나라에서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최고의 입지를 추천하자면, 반도체 제조 기초 재료인 섬진강 모래를 사용할 수 있고, 공업용수로 섬진강물을 곧바로 사용할 있으며, 가까운 여수 광양의 화력발전소 등에서 대규모전력을 용이하게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구례군 토지면과 마산면 농지 200 만 평입니다.</p> <p>순천대학교-순천시-구례군-TSMC가 반도체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특히 순천대학교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여 구례군에 순천대학교 반도체특성화캠퍼스를 조성하여 동부지역을 한국의 실리콘벨리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p> <p>이것을 향후 순천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하면 동부지역은 세계 제일의 첨단 전자산업단지로 발전할 것을 예견합니다.</p> <p>특히 전남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p>			
--	---	--	--	--

	<p>지층인 시생대 지층으로 지진에 가장 안정한 지반이어서 반도체 공장의 입지에 최적의 조건입니다.</p> <p>또한 반도체 제조용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예전에 반도체 웨이퍼 제작용 반도체봉을 생산할 수 없어서 섬진강 모래를 유조선에 가득히 퍼주고 그 댓가로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봉 몇 개 정도를 일본에서 가져왔던 일화는 한국 반도체산업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p> <p>2026년은 동부지역이 세계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p> <p>감사합니다.</p>			
--	--	--	--	--